2019년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성모님의 밤

일 시 : 2019년 5월 29일(수) 19:00시
장 소 : 만남성당 강당(행사 전에 청년회에서 강당 세팅 완료)
대 상 : 본당 전 신자
행사 협조 : 레지오 마리애, 전례분과, 청년회, 믿음의 샘 꾸리아 단장, 사목위원
행사 순서
1. 예식 전 해설 - 시작성가 : 245장
2. 신부님 인사 말씀
3. 부활초 점화(신부님)
4. 개인 촛불 점화
5. 화관식(사목협의회 회장님)
6. 묵주의 기도 - 믿음의 샘 꾸리아 단장 주송
* 각 단 지향 후 성가 270장(환희의 신비)
7. 개인 촛불, 꽃 봉헌 - 성가 236장
8.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문 - 청년회
9. 성모찬송 : 믿음의 샘 꾸리아 단장 주송
10. 성모 신심 미사 : 본기도부터

세부계획
1. 준비 작업
(1) 꾸리아 : 다과 준비, 꽃 준비, 묵주기도, 화관 준비
(2) 전례분과 : 초 준비, 해설자, 독서자, 복사단
(3) 청년회 : 강당 세팅 완료, 방송설비
(4) 봉헌글 : 청년회

(1) 예식 전 해설과 시작성가
◈ 우리들은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성모님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신데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성부께 맡기시고 순명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특은을 받으셨고, 또한 교회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모아 성모님께 봉헌하기 위해 오늘 성모님의 밤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찬미하는 이 밤에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전구자이신 평화의 어머니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어머니께서 가신 순명과 겸손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함부르크 한인성당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성모님께 의탁하며 성모님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나십시오. 시작성가 245장을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신부님 말씀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일생을 당신 아드님과 함께 하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신앙의 모범이요, 특별히 일생 동안 고통과 외로움, 주위의 차가운 눈빛마저도 기도와 희생으로 기꺼이 감수 인내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성모님의 밤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도 성모님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세주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충실한 생활로,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3) 부활초 점화 및 개인 촛불 점화(신부님)

◈ 신부님의 부활초 점화 후에 개인 초에 모두 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부활초에서 전달된 불로 개인 초에 불을 붙인다) (개인 초 점화 후)

(4) 성모상 화관식(사목협의회 회장님)

◈ 이어서 사목협의회 회장님께서 성모상에 화관을 씌워 드리겠습니다.

◈ 이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아시는 어머니께 우리의 마음을 엮어 묵주의 기도(환희의 신비)를 믿음의 샘 꾸리아 단장님의 주송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 중간에 성가 270장을 부르시면서 “아베마리아” 부분에서는 모두 촛불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묵주 기도 (믿음의 샘 꾸리아 단장 주송으로)

◈ (환희의 신비) 1단은 성교회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 노래

◈ (환희의 신비) 2단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 노래

◈ (환희의 신비) 3단은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 노래

◈ (환희의 신비) 4단은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 노래

◈ (환희의 신비) 5단은 우리 교구장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 노래

(묵주기도가 끝나면)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자애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6) 개인 촛불 및 꽃 봉헌
◈ 이제 성모님의 삶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모님께 촛불과 꽃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성가 25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모상 앞에 받아 정리하는 사람 2명, 꽃 담아두는 꽃병 준비)
(7)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문(청년회)
◈ 이어서 신부님이 쓴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문을 청년회 회원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8) 특송이나 연주(가능하다면 진행, 가능하지 않으면 없이 진행)
◈ 다음은 성모님께 드리는 특송을 하겠습니다.
◈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를 좌우 교송으로 바치겠습니다.(꾸리아 단장님이 주송)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이 지켜주소서.
● 저희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며, 어머니 슬하에 살기로 약속하나이다.
○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은 성부께 맡기시고, 성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성모님께 맡기셨나이다.
●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맺어진 모자의 인연으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온갖 위험과 고통 중에 돌보아 주시며, 저희 죽을 때에 저버리지 마옵소서. ◉ 아멘.
◈ 이어서 성모 신심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사는 본기도부터 시작합니다.
► 묵주기도를 바쳤기 때문에 참회와 자비송의 예식은 생략합니다. 바로 본기도로 넘어갑니다.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12-14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

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화답송으로 가톨릭 성가 253장 네 머리를 꾸미오니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6-38
그때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 (강론이 끝나면) 일어서십시오. 이제 모두 보편지향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보편 지향 기도>
†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신 성모님의 은덕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합시다.
1. (회장님)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회를 지켜 주시어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

게 하소서. ⊙
2. (남성부회장님) 예비신자와 냉담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빛이신 주님, 아직도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일시적으로 당신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모두가 당신을 모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3. (여성부회장님)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 기도합시다. 주님,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빛을 밝히는 본당 공동체를 지켜 주시어,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성화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사업을 완수 하게 하소서. ⊙
4. (꾸리아 단장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가난에 시달리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소서.
† 성모님의 구원 협력으로 인류 구원을 준비하신 하느님, 당신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인자로이 받아들이시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
◈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 예식에 참여합시다. 앉으십시오. 오늘의 봉헌금은 함부르크 교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으로 봉헌될 것입니다. 봉헌성가는 247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물기도>
† 거룩하신 아버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결합시키시어 현세의 위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감사송>
►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감사송 1 : 어머니이신 마리아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성찬기도 제2양식>
<주님의 기도>
<평화의 기도>
<하느님의 어린 양>

(신부님이 성체와 성혈을 영한 다음)
◈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64장을 부르겠습니다.
<영성체 후 묵상>
◈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에게서 우리는 은총을 입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찬사와 동경과 애정을 성모님께 바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모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매순간 자신을 봉헌하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고 비오니 저희가 성자를 낳으신 어머니를 공경하고 기리며 죽어 없어질 이 몸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장엄 축복>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 아멘
† 오늘 성모님의 밤을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파견>
† 주님을 찬미합시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파견 성가 238장을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 영광송
◈ 성호경
◈ 이상으로 성모님의 밤 행사와 성모 신심 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와 다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